

미국, DDA 협상재개 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철릭 대표는 지난 1월 11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DDA 협상을 진전시키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그는 협상을 재개하여 2004년을 DDA 협상에 있어서 실패한 한 해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식적 접근방법을 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 공산품, 서비스, 개도국 우대조치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법을 설명했다.

1. 협상재개 시도

철릭 대표는 그동안 DDA 협상의 진전 속도가 느려서 대다수 협상 관계자들이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협상 종료 시한인 2004년 말에 홍콩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6월까지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국이 협상에 좀 더 성의있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몇 달 간 주요 회원국들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카스티요 일반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금년 2월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브라질,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후보국들을 언급하며, “무역자유화와 개발을 연관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따라” 새 의장직을 이들 개도국에게 양보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일반이사회 의장이 개도국 출신이므로 WTO 관례상 이번에는 선진국에서 의장이 선출될

차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대사가 일반이사회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2003년 9월에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회원국들은 지난해 연말까지 비공식 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다. 2003년 12월 15일에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당초 협상시한인 2004년 12월말까지 협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진일보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채 단순히 협상그룹 회의를 재개하자는 데에만 합의했었다. 미국은 최근 여러 나라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칸쿤 각료회의 결렬 직후 쥘릭 대표는 ‘협상할 의욕이 없는’ 회원국들을 배제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들과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 핵심은 농업부문

쥘릭 대표는 이번 서한에서 협상은 농업부문을 필두로 해서 공산품,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농업부문의 경우 2003년 8월에 발표된 미국·EU의 공동제안을 번복하고 원래의 미국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수출보조의 폐지시한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는 또한 2002년부터 미국이 제안했던 무역외국적 국내보조와 관세의 점진적 철폐를 다시 언급했다. 농산물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개도국이 공히 실질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면화문제는 농업협상이라는 무역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개혁과 기술이전 등 경제개발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야심적인 관세감축공식을 주장했다. 쥘릭 대표

는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이미 여러 회원국이 제출한 40개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제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해서 쥘릭 대표는 각 나라와 지역의 요구가 다른 만큼, 100개가 넘는 개도국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신축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이슈에 있어서는 투자와 경쟁정책은 일단 논외로 하고 무역원활화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나가는 동시에 정부조달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 approach)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3. EU의 반응

한편 1월 13일 유럽의회에서 EU의 무역담당 집행위원 라미(Pascal Lamy)와 농업담당 집행위원 피슬러(Franz Fischler)의 발언이 있었다. 라미 의원은 무역협상에 대해 전반적인 브리핑을 한 이후에, 쥘릭 대표의 서한을 ‘바람직한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EU와 미국이 동일한 선상 위에서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싱가포르 이슈나 지리적 표시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신축적인 자세를 보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진지하게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부 회원국들만이 신축성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신축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라미 의원은 머지 않아 개최될 G20과의 회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WTO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4월까지 농업, 공산품, 싱가포르 이슈 등에 대한 모델리티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슬러 의원은 농업협상을 타결시키는 데 있어서 EU가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생산제한보조(Blue Box)보다 감축대상보조(Amber box)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실질적으로 규율해야 하며 그 규제는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가 필요한 수출경쟁의 예로 국영무역기업, 수출세, 식량원조를 가장한 덤핑 등을 꼽았다. 그는 또한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이 모든 수출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자는 EU의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어떤 품목을 중요 품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4. 다보스 미니각료회의

20여 명의 WTO 회원국 대사들은 오는 1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WTO 협상에 대해 논의할 소규모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스위스 외무부 장관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2004년도의 WTO 협상계획과 협상재개를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WTO 회원국들은 개별 협상그룹의 의장을 새로 선출한 후에 협상그룹 회의와 무역협상위원회(TNC)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4년 첫 일반이사회는 2월 11~1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 : BRIDGES Weekly Trade News Digest, 2004. 1. 14
(농협조사연구소, 「농업통상정보」, 2004년 제1호, 2004. 1. 16)